

예술이 된 만화, '칸'의 미학을 풀어보다

전남도립미술관 '종이의 영웅, 칸의 서사'

각시탈·타짜·식객... 대한민국 만화사에 한 획을 그은 허영만 화백의 초대전이 열린다. 전남도립미술관은 오는 6일부터 10월 20일까지 '종이의 영웅, 칸의 서사' 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개관 이래 지역작가 작품 세계를 조망하고자 한 전남도립미술관이 여수 출신 허영만 화백을 초대하면서 마련된 자리다. 전시를 통해 제9의 예술로 불리는 만화는 문화 예술 영역으로 확대된다.

허영만 작가의 50년 만화 인생을 되돌아보는 대표 작품을 비롯해 만화 원화, 드로잉, 취재 자료 등 출판하기까지 일련의 과정들이 수반된 아카이브 자료를 선보인다.

허영만 작가는 여수 출신으로 데뷔 5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 만화계의 대가이다. 1974년 한국일보 신인 만화 공모전에 '집을 찾아서'라는 작품이 당선되면서 만화가로 데뷔한 작가는, 같은 해 소년한국일보사에 연재한 만화 '각시탈'의 흥행으로 '허영만'이라는 이름 석 자를 세상에 알리고, 서유기를 바탕으로 재해석한 작품 '날아라 슈퍼보드'가 공전의 히트를 기

50년 만화인생 허영만 화백 초대 만화 원화·리메이크 작품 등 선배 각시탈·타짜·식객 등 공전의 히트 대중 문화영역 예술 장르로 확장

록하면서 만화가로서 명성을 얻었다.

이후 '각시탈', '비트', '타짜', '식객' 등이 동명의 영화와 드라마 등으로 재제작되면서 허영만의 작품은 종이를 넘어 대중매체까지 문화 영역을 확장하였다.

이번 전시는 허영만 작가의 50년 대표 걸작들을 중심으로 만화사에 미친 영향과, 작가의 예술적 가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총 4부로 나뉘어진 '종이의 영웅, 칸의 서사' 전시는 1부 만화가 허영만, 2부 '시대를 품은 만화', 3부 '매스미디어 속 만화', 4부 '일상이 된 만화'로 구성했다.

1부 '만화가 허영만'은 만화의 초기 발전부터 대중문화까지 영향을 끼친 만화사 자료와 함께 작가의 펜 끝에서 탄생한 각종 캐릭터 및 작가의 작품 연대기 등을 집대성한다.



전남도립미술관 허영만 초대전 '종이의 영웅, 칸의 서사'가 오는 10월 20일까지 열린다. 전남도립미술관 제공

2부에서는 '시대를 품은 만화'라는 주제로 '각시탈'과 '오! 한강' 속 나타난 시대상과 이념, 사회 문제 등을 심도 있게 조명한다. '각시탈'에서는 2012년 KBS2에서 방영된 동명의 드라마에서 실제 사용된 각시탈을 전시한다. 이어 1945년 해방부터 1986년 6·29 민주화 선언까지 격동의 근현대사를 풀어낸 '오! 한강'을 전시한다. 해방, 전쟁, 광복, 쿠데타, 민주화운동이 이르는 격변의 근현대사가 만들어내는 가슴 아픈 서사가 작가의 걸출한 연출력과

결합해 더욱 의미 있게 전달된다.

3부에서는 '매스미디어 속 만화'를 주제로 종이 예술이 미디어 영상물로 발전하는 과정과 양상을 살펴보고, 만화를 원작으로 제작된 영화와 TV 드라마가 흥행하면서 만화가 갖는 대중적·예술적 가치를 알아본다. '날아라 슈퍼보드'와 20대 청춘들의 방향을 아름답게 그려낸 작품 '비트', 상업도박의 단면을 낱알이 드러난 작품 '타짜' 등 예술이라는 장르 내에서 매체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방증

을 보여주며, 지면 만화가 영상물로 재탄생하는 과정을 통해 만화가 대중예술의 한 장르로 굳건히 자리매김하는 현상을 엿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마지막 4부에서는 '일상이 된 만화'를 만날 수 있다. 인간 생활의 세 가지 기본 요소인 의식주에서 식문화를 예술로 승화하며 미식 문화의 유행을 선도하고 대중적인 관심도를 이끌어낸 '식객'과 나아가 최근까지도 꾸준히 집필하고 있는 허영만의 '만화 일기'는 소재 자체가 '작가의 일상'인 작품을 통해 작가의 시선에 비친 하루의 짧은 순간들이 가쁜 그림체와 간결한 문장으로 여운을 준다.

이지호 전남도립미술관장은 "다양한 매체로 발전하여 산업적 가치와 예술로 인정받은 만화 예술이, 대중예술의 한 장르로 굳건히 자리매김하여 향후 만화 예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입장료는 성인 1000원이다. 오는 9월 7일에는 허영만 작가의 아티스트 토크도 진행되며, 전시의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립미술관 누리집(artmuseum.jeonnam.go.kr) 및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인공지능 전시안내 로봇 '큐레이팅봇(큐아이)' ACC 제공

ACC, 큐레이팅봇 안내 서비스 본격 시작

전시안내 로봇 '큐아이' 선배한·영·중·일 4개국 해설 가능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8월부터 인공지능 전시안내 로봇 '큐레이팅봇(이하 큐아이)' 서비스를 본격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ACC는 지난달 31일 한국문화정보원(원장 정운현)과 '큐아이' 안내 서비스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아시아문화박물관에서 시연회를 개최했다.

'큐아이'는 지능형 멀티 문화정보 큐레이팅 로봇으로 '문화(Culture)+큐레이팅(Curating)+인공지능(AI)'의 합성어다. '문화정보를 큐레이팅하는 인공지능' 또는 '문화정보를 큐레이팅 하는 아이'라는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다.

ACC가 방문객들의 편리한 관람 환경 제공을 위해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큐아이'는 아시아문화박물관의 기본정보, 공

간구성, 전시안내 등 다양한 문화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큐아이'는 자율주행으로 도서관과 전시공간을 누비며 관람객에게 전시내용과 권역별 아시아문화에 관한 기초정보를 설명한다. 터치 입력 방식과 음성 대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4개 언어로 해설이 가능하다.

ACC는 1세대 '큐아이' 서비스를 시작으로 보다 업그레이드된 2세대 로봇까지 도입할 예정이다. 2세대 로봇에는 청각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수어 영상까지 담을 계획이다.

이강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은 "'큐아이'가 아시아문화박물관 전시를 소개하는 해설가로서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여름방학을 맞아 아이들과 함께 '큐아이'도 이용하고 다양한 문화정보도 제공받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세계 최고 오케스트라 악장들과 세종솔로이스츠 공연

17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완벽한 현악 앙상블 초대

광주문화재단은 2024 우수공연조정기획 첫 번째 무대로 오는 17일 오후 5시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에서 세종솔로이스츠의 '바이올린 엑스트라바간자'를 선보인다.

1994년 뉴욕에서 창설되어 현악 앙상블의 정점에 올랐다는 찬사와 함께 최고의 연주력을 인정받고 있는 세종솔로이스츠는 세계 음악 무대에서 활약하는 많은 인재들을 배출해내며 차세대 리더 산실의 역할을 해왔다.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의 힘을 전 세계에 알린 세종솔로이스츠가 올해로 창단 30주년을 맞아 그동안 쌓아온 역량을 집결해 보여준다.

이번 '바이올린 엑스트라바간자' 협연자로 나서는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악장 프랭크 황,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오케스트라 악장 데이비드 첸, 함부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악장 다니엘 조 역시 세종솔로이스츠 출신 연주자들이다. 전문 연주자로서의 경력을 쌓아가던 시절 음악적 자양분이 되어 주었던 친정 악단으로 오랜만에 돌아온 세 명의 악장이 후배들과 함께 세종의 30주년을 축하한다.

프랭크 브리지의 우아하고 경쾌한 '왈츠 인터메조'로 공연이 시작되고, 이어 프랭크 황, 데이비드 첸, 다니엘 조가 협연하는 비발디의 '세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F장조, RV 551' 등이 연주된다.

또한, 스페인의 이국적인 정취를 가득 담고 있는 레오나르도의 '스페니쉬 풍의 세레나데 유모레스크'에 이어, 한 대의 더블베이스를 사이에 두고 두 그룹

의 현악 4중주가 결투를 하듯 격정적이면서도 드라마틱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골리호브의 '마지막 라운드'로 1부 무대가 마무리된다.

이번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2부 연주곡인 맨델스존의 '현악 8중주 Op. 20'이다. 풍부한 하모니와 역동적인 리듬이 어우러진 걸작으로, 현악 앙상블의 진가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세 명의 협연자와 세종의 단원들이 어우러져 연주하는 이 곡을 통해 관객들은 현악 앙상블이 보여주는 균형미의 극치를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입장료는 전석 만원으로 7세 이상 관람할 수 있으며, 티켓링크에서 예매할 수 있다. 전 좌석의 10%는 문화소외계층(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좌석으로 운영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재단(<https://www.gjcf.or.kr>) 및 빛고을시민문화관(<https://bitculture.gjcf.or.kr>), 광주문화예술통합플랫폼 '디어마 이광주'(<https://dmgi.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선인 기자



조선대 예비예술인들과 스타작가의 만남

'스타 아티스트...'展 7일까지 예술공간 집

미래의 예술가를 꿈꾸는 예비예술인과 작가들이 한 자리에서 만났다. 지역을 기반으로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는 김철아, 윤준영, 조정대 작가가 멘토가 되어 예비예술인의 고민을 공유하고, 작품세계에

대해 조언을 나누는 특별한 전시 'Star Artist X START'가 오는 7일까지 갤러리 예술공간 집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예비예술인 현장연계 지원사업' 일환으로 마련된 자리다. 현재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3, 4학년에 재학 중인 예비예술인(고예진, 김예영, 서창건, 어예나, 임정

현, 하늘푸른)과 이들이 만나고픈 작가로 지목된 김철아, 윤준영, 조정대 작가가 한 자리에 모였다.

전시명 'Star Artist & START'는 이제 막 예술가의 시작을 꿈꾸는 예비예술인과 이들이 선정한 스타아티스트를 뜻한다. 전시 첫날인 지난 1일 멘토 아티스트와 함께하는 아트 토크도 진행됐다. 3시간 동안 참여자들은 각 개인의 작품에 대한 고민부터, 예술가로 현장에서 버텨던 생생한 이야기들을 공유했다. 도선인 기자



@jnilbo
전일보 인스타그램

#호남대표미디어

#전일보

#전남일보_뉴스서비스

